2025년 4월 29일 화요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나주, 계약·서무 직원 대상 교육

나주시는 최근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 터에서 시 소속 구매, 계약, 서무 및 회계 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기 업제품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는 사회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을 위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 업, 자활기업 등)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 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교육에는 김형윤 전남상사 사회적협동 조합 이사장이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제도 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강의를 했다. 김 이사장은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방법, 전남 공공 구매 온라인 플랫폼 사용 법 등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 선구매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 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말했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

영광, 치매극복 걷기 캠페인 건강 홍보관 구성 등 '호응'

영광군은 최근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소 공연장 일원에서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널 리 알리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치매 예방 체 조와 걷기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 형 건강 홍보관으로 구성돼 주민 500여명 의 큰 호응을 얻었다.

걷기 캠페인은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소 공연장을 출발해 우산공원 일대를 도는 코스로 진행됐으며, 주민들은 봄기운 가 득한 자연을 만끽하며 건강한 치매 예방 걷기를 함께했다.

행사장에는 치매예방교육, 혈압•혈당 측정, 스트레스 검사, 구강・금연・비만 관 리 예방 교육, 기침 예절·손 씻기 교육 등 여러 건강 체험관이 운영됐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LOCAL 땅끝 해남 가까워진다…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보성~임성간 철도 9월 개통…KTX 노선 유치 총력 광주~해남 고속도로 1단계 사업·해저터널 등 순항

해남군이 추진 중인 철도와 도로 등 대 선 유치를 위한 전략도 추진 중이다. 규모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 순항 중이

철도가 오는 9월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면에는 땅끝해남역이 문을 연다. 2030년 다. 경전선 전철화가 완료되면 부산까지 열차 로 직행이 가능해진다.

이 노선은 경전선과 호남고속철을 연결 하고 서울~해남~제주를 잇는 서울~제 28일 해남군에 따르면 영암과 해남, 강 주간 고속철도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 진, 장흥, 보성을 연결하는 보성~임성간 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 로 대응하고 있다. 노선 유치가 실현되면 지난 2003년 첫 삽을 뜬 보성~임성간 목포역을 경유하지 않고도 무안공항과 서 철도는 해남 최초의 철도노선으로, 계곡 울을 오가는 직통노선 확보가 가능해진

도로 교통망도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 예정이다.

해남군은 철도망 개통에 맞춰 KTX 노 오는 2026년에는 광주~해남 고속도로 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해남 계곡면 철도

1단계 사업이 완료된다. 총 51km 구간에 1조6000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광주 벽진동에서 강진까지 연결되며, 해남에서 광주까지의 이동시간이 40분대로 단축될

고속도로 2단계 사업도 지난해 예비타

진행하며 순항 중이다.

들목을 설치, 물류 유통과 인구 유입에 긍 이다. 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상징적 사업도 앞두고 있다.

터널은 2021년 착공 이후 6년 만에 완공 을 앞두고 있으며, 지역 최초의 해저터널

있다. 해남~대흥사간 지방도 4차선 확포 장공사(해남 평남 교차로~삼산 신기 교 치로)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으며, 마산~산이 지방도 4 2단계 구간은 강진~해남 북평까지 38 차선 확포장공사(마산 상등~산이 대진) km로, 2028년 착공해 2034년 완공을 목표 도 1단계 구간(마산 상등~산이 노송) 착 로 하고 있다. 해남 옥천면과 북평면에 나 공 및 본격적인 보상단계에 들어갈 예정

확포장 중인 해남~대흥사간 지방도와 오는 2027년에는 해저터널 개통이라는 연결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화산 대 지 구국도 확포장공사도 올해 준공 예정으 신안 압해~해남 화원을 연결하는 이 로, 지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교통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완공된 도로를 더욱 효율적으 로 관광 활성화 및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도 추진, 올해 마무리 예정이다. 지역 내 여기에 맞춰 지방도 공사도 순항 중에 군도 272.9km 노선을 전산화 중으로, 사 업이 완료되면 더욱 체계적인 도로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루마니아 인플루언서, '강해영' 매력에 빠졌다

〈강진·해남·영암〉

강진·해남·영암 문화관광재단, 팸투어 개최

력하는 관광진흥 사업인 강해영 프로젝트 을 체험하기도 했다. 팀은 최근 지역의 대표 관광 콘텐츠를 체 고 28일 밝혔다.

팸투어는 한류 문회를 공부하며 직접 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험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루마니아 인 플루언서와 루마니아 한류협회 아리랑 관 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의 사찰이 지닌 멋과 종교관 등을 살펴 도 했다. 특히 이들은 팸투어의 경험을 실

영암구림전통마을과 구림한옥스테이 험하고 확장하기 위한 팸투어를 개최했다 도 방문해 한복 입기와 전통주 빚기, 한옥 을 경험하며 과거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

민화박물관도 방문해 한국 고유의 예술적 가치를 접했고, 해남 대흥시를 찾아 전통 첫 방문지로는 영암 도갑시를 찾아 한 차 문화체험을 통해 차 문화 체험을 하기

시간으로 SNS, 유튜브로 송출해 루마니 아 현지인들로부터 호응을 받기도 했다.

행사를 함께한 루마니아 한류협회 아리 강진·해남·영암의 문화관광재단이 협 봤다. 사찰의 고유한 식사법인 발우공양 랑 정모니카(Jung, Monica) 회원은 "팸 투어가 단순 관광지를 둘러보는 수준을 넘어서는 감동 중심의 체험형 프로그램이 었다"며 "참여한 모든 루마니아인 참가자 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전했다.

> 조형빈 영암문화관광재단 PD는 "이번 팸투어 참가자들은 강진 청자박물관과 팸투어가 지역이 지닌 고유한 매력을 어떻 게 조합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한국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만날 수 있는 접점 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동했으면 한다"고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



담양군은 코레일관광개발과 최근 송강정실에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

담양, 코레일관광개발과 협력체계 구축

관광상품 개발 등 달빛철도 개통 대비

담양군은 코레일관광개발과 최근 송 강정실에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외 관광 홍보 강화 등 다양한 협력사

이번 협약은 철도를 기반으로 관광 서비스를제공해온코레일관광개발의 운영 역량과 담양군의 풍부한 관광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을 결합, 지역 상생과 지속 가능한 관광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인 달빛철도에 대비한 철도 연계 관 광상품 개발·운영, 철도 이용 국내외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실효 성 있는 관광상품 기획과 운영, 국내 업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류형 관광 수요 확대에 크게

정철원 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은 영·호남을 연결하는 달빛철도를 발판 삼아 담양의 관광산업이 도약할 수 있 협약의 주요 내용은 2030년 개통 예 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양 기관이 힘을 모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성공적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사업 추진 인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





